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박차

군산시, 어청도 해수담수화시설·막여과 정수시설 확충 어청도 제외 14개 유인 도서에 용담댐 수돗물 공급 추진

군산시가 고질적인 섬지역 식수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도시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야미, 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는 이미 지방상수도를 공급중이며 방축도는 해저관로를 신설하여 2022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아직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도시지역 중 방축도에서 명도 말도를 잇는 연육교 설치사업에 맞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64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관 설치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는 9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 군도의 모든 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에서 두리, 비안도까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해저관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야도는 서천군과 공동으로 소룡동에서 서천군 소재 유부도까지 해저관로를 설치하고, 유부도에서 개야도까지 6.8km는 군산에서 해저관로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

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두리·비안도와 개야도의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의 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야도의 해저관로 사업이 완료되면 연도까지 약 10km의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여 2030년까지는 어청도를 제외한 전체 13개 유인도서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물샴없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익산시, 지역산 가공품 업체 대상... 원산지·위생 등 현장 점검

익산시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물샴없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모니터링, 안전성 검사 등을 진행하고 13일 밝혔다. 먼저 14일과 16일에 지역산 가공품 생산·공급업체에 대한 학교급식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익산시를 비롯해 익산교육지원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지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업체를 방문해 각종 인허가·인증 여부, 원재료 원산지 정보 확인, 위생 및 품질안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명이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해 11월까지 12회의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품질·위생·안전성관리 상황을 점검해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는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산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해 신뢰 구축에도 힘쓰고 있으며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GMO검사 등 올해 총 55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통보해 해당 품목의 공급을 중단하고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아이들의 성장과 면역력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수여식·간담회 가져

군산시, 신규 유망 강소기업 4개사·강소기업 1개사 선정

군산시는 13일 군산시청에서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대흥산업가스(주) △(주)에스엠신소재 △(주)에이씨엔에스 △(유)와이케이 4개사이며, 강소기업은 △(주)성현 1개사이다. 이번에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대흥산업가스(주)는 산업용 가스, (주)에스엠신소재는 탄소복합소재, (주)에이씨엔에스는 특장차 관련 자동차 부품, (유)와이케이는 엔지니어 플라스틱 관련 자동차 부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기업들이다.

또한 올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성현은 지난 2021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을 계기로 파워플랜트 기자재 생산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새만금 신산업에 이차전지 장비 생산을 위해 신·증 설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국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 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천 만원을 3년간 매년 지원받고, 유망 강

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천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의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기업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내외 불안한 경제흐름 속에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해외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강소기업이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차액 100% 지급

익산시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액을 지원해 농가 소득안정을 돕는다. 시는 견고추, 생강, 노지감자 품목에 대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및 농산물 시장 가격 불안정에 대응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익산시가 나머지 10%를 추가 지원해 최종적으로 가격 하락분 1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견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마늘,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총 7개 품목이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 받는 견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외에 다른 품목들도 품목별 정식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자는 직접 지역 농협 또는 통합 마케팅조직(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2024 세계인의 날 기념 특별 행사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시민 강연 ‘월드톡톡(World Talk Talk)’을 18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를 초청해 ‘지구히사적인 상호 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을 비롯해 라오스와 필리핀의 전통춤·퓨전국악·아카펠라 공연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 문화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색보레 테라리움, 모자이크 컵 받침 만들기 등도 운영할 예정이며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익산글

로컬문화관 누리집(globalksn.gokri)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5385, 53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4 세계인의 날 기념 특별행사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로 ‘재한외국인차우기법’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렴지킴이 발대식 청렴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가 13일 오후 대강당에서 부시장 주재로 77명의 청렴지킴이가 모인 가운데 청렴지킴이 발대식 및 청렴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렴지킴이는 군산시 77개 관·과·소 및 읍·면·동을 대표해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며 청렴 총괄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날 청렴지킴이 발대식을 겸해 2024년도 청렴시책 추진상황 보고회가 개최됐다. 보고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내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과 2024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착한소비 동참 다리로움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착한소비운동 확산을 위해 다리로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13일부터 26일까지 다리로움 결제·착한소비운동 만족도조사 참여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 다리로움 가맹점에서 합산금액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착한소비운동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다리로움 포인트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다리로움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착한페이 앱과 익산시청 누리집에 공지된 인터넷주소(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선정해 다리로움 포인트 1만 원을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 다리로움은 지난 8월 기준 가입자 수가 24만 2,628명이며 올해 발행액은 1,541억 원이다. 총 누적 발행액 1조 7,852억 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